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8호 【루계 제23200호】 주체99(2010)년 9월 5일 (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 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지금 온 나라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에 특기할 격동적인 사변을 앞두고있는 오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당대표회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에 이어 각지에서 진행된 당대표회들에서는 일치하게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대서사시적화폭이며 절세의 위인을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온 누리에 떨쳐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힘있는 과시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한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으며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확신성있게 령도하여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우리 당이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며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한것은 당과 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심의 분출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최고대표자이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광의 상징이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다.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끌어오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십성상 우리 당과 군대, 조국과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김일성**민족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일찌기 전당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을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그 면모를 일신시키시며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존엄떨치게 되였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선군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특히 준엄한 시련이 겹쌓이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의 견결한 수호자로 키우시며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대국건설의 백승의 활로를 열어놓으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최대의 업적으로 된다.

오늘 우리 조국은 주체의 강성대국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가 위대하기에 우리 당이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위용떨치고 우리 식 사회주의가 금성철벽의 보루로 솟아있으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끝없이 빛난다는것을 더욱더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이번에 각지에서 진행된 당대표회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희세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천만년 무궁토록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결한 충정의 마음이 세차게 분출된 대회합이였으며 위대한 혼연일체의 숭고한 화폭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한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신념과 의지의 힘있는 과시이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온 세상에 빛내이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초인간적인 의지와 무한대한 정력으로 나라의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며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신다. 대고조격전장들을 찾으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천만군민이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게 하는 생명수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는 곧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라는것이 당의 선군령도따라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대혁신, 대비약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열화같은 흠모심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대오가 불패의 혼연일체를 이루고있기에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김일성**조선의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우리의 길은 백전백승의 길이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최고대표자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당대표자회를 우리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맞이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절세의 위인을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동서고금의 그 어느 위인도 따를 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풍모로 하여 21세기의 태양으로 만민의 칭송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다. 우리는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희세의 정치원로이시고 강철의 선군령장, 창조와 건설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간직하며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우리 령도자, 우리 최고사령관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을 가장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시며 필승의 기상과 무비의 담력,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으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력사에 전무후무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대대로 위대한 태양을 모신 조선의 행운을 심장깊이 절감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성상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와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신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업적과 강성대국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며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는 자위적국방력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선군혁명업적을 **김일성**조선의 만년재보로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누구나 우리 인민의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며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장군님따라 나아가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여야 한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데서 세차게 분출되여야 한다.

령도자는 천만군민에게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군대와 인민은 령도자를 어버이로, 삶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며 장군님의 한식솔, 하나의 혁명적대가정을 이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해나가야 한다. 군민대단결의 전통적미풍을 계속 높이 발휘하며 온 사회에 선군시대의 집단주의기풍, 사회주의적생활기풍이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대풍모가 더욱 힘있게 과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는 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이며 우리 혁명승리의 근본원천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혁명하는것을 최상의 특전으로, 최대의 영예와 긍지로 간직하고있으며 이 숭고한 사상감정은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앞둔 오늘 더욱 세차게 폭발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받드는 우리의 충정은 억년세월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순결한것이며 천지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것이다. 우리는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에서 천백배로 다져지고 굳세여진 혁명적신념과 의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선군정치의 견결한 옹호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애민의 사상과 정신을 따라배워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 투쟁해나가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기풍이다. 이 혁명적기질은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를 창조하며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하는 대고조진군길에서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선군천리마의 우람찬 발구름소리 울리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나아가야 한다. 희천발전소 군인건설자들처럼 선군시대의 대고조진군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돌격전의 기수들, 대계도의 용사들과 같이 불굴의 희생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로 위대한 기적과 변혁을 일으키는 선군조선의 불사조들, CNC화의 고향인 자강도의 로동계급처럼 민족자존의 기상으로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를 압도해나가는 시대의 선구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참된 혁명동지들이다. 천만군민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당의 구호를 신념의 표대로 삼고 투쟁해나갈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 우리는 걸출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선군조선의 불멸의 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화선용사의 용감성과 투지로 올해의 전투목표들을 앞당겨 점령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를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절세의 애국자, 천하제일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있기에 선군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모두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총진군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령도자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2010년 9월 2일 디마스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광범히 보도하였다.

중국 공산당보도망, 정부망, 국방부망, 보도망, 방송망, 중화망, 경제망 등 인터네트홈페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소식을 상세히 게재하였다.

꾸바신문 《그란마》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의 호금도주석과 상봉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호금도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호금도동지와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시였다.

호금도동지는 조선이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조선동지들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것을 지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인민이 과학적발전관을 실천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력사적로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믿는다고 지적하시였다.

이 나라의 TV방송들과 렐로흐방송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캄보쟈의 아까뻬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5일간에 걸쳐 중국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길림육문중학교를 비롯하여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대상들을 방문하시였다.

중국 중앙과 지방의 지도간부들, 인민들은 **김정일**령도자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극진히 환대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이번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조중친선의 년대기우에 빛나게 기록될것이다.

이 나라의 압싸라 TV 및 라지오방송, 라오스통신과 국가TV방송, 신문 《비엔티안 마이》,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즈 타임스》, 인도네시아의 안따라통신과 신문 《국제일보》, 네팔신문 《히말라야 타임스》, 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스타》, 프랑스 AFP통신, 에티오피아통신, 베네수엘라의 뗄레쑤르 TV방송,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공동홈페지 《조선—백두산》도 《**김정일**총비서 중국을 비공식방문》, 《**김정일**령도자 호금도주석과 회담》, 《조선과 중국의 최고령도자들 상봉》, 《조선과 중국 전략적관계와 경제무역강화》 등의 제목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방문소식을 특별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위업의 승리를 담보해주는 불멸의 대강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작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광범히 연구보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가장 위력한 무기,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인것으로 하여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며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진보적인류의 열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희세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세기적인 대혁신, 대비약을 창조해온 올해 상반년에만도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에 대한 소개선전과 연구보급활동이 세계적판도에서 더욱 광범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등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메히꼬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와 베네수엘라 깐따끌라라출판사, 에꽈도르 볼룬따드출판사, 도이췰란드 베를린 아차위출판사를 비롯한 수많은 정당, 단체들과 출판기관들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발행식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로작발행식들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저서들을 출판보급하게 되는 기쁨을 피력하였다.

파키스탄 빅토리얼출판사 사장은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는 **김정일**각하의 로작을 출판한것은 출판사의 커다란 영광으로 된다고 하면서 로작번역출판사업을 더욱 적극화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와 전쟁위협을 물리치고 부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떨쳐나선 조선인민에게 고무로 될뿐아니라 단마르크인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대한 구상과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옳바른 리해와 인식을 가지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네팔신문 《저너 써따》,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 방글라데슈신문 《블리쯔》, 캄보쟈의 에프엠 90.5방송,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공동홈페지 《조선—백두산》 등 여러 나라 신문, 방송, 인터네트홈페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모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전문 또는 요지로 편집하였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인디아신문 《인디안 앤드 월드 이벤트》, 이딸리아잡지 《라 보체》를 비롯한 각국의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은 《정열에 넘치시는 령도자》, 《사상리론가이신 **김정일**동지》,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당으로》,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 등 제목의 글들에서 고전적로작들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을 해설하였다.

에티오피아신문 《데일리 모니터》는 《**김정일**선집》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대한 철저한 계승성으로 일관되여있는 **김정일**령도자의 로작들이 혁명과 건설의 총서, 대백과전서로 불리우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라고 찬양하는 글을 편집하였다.

로씨야신문 《웨쩨란》은 글에서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신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모든 사상리론적문제들을 고전의 리론과 명제에 구애됨이 없이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시였으며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의 진보적정당들과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이 토론회, 해설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되였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전적로작들이 과학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력사적의의를 가지고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데 대하여 격찬하면서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5대륙의 진보적인민들이 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불멸의 저서들을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정녕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진리성, 담고있는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으로 하여 시대와 혁명발전을 적극 추동하고있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위대한 고무적기치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선군령장의 조국수호의 의지가 굽이굽이마다에 새겨져있는 철령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인민의 리상을 찬란히 꽃피우는 위대한 당

최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당대표회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한결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뜻깊은 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한것은 위대한 당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의 분출로 된다.

위대한 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는데서 력사적인 의의를 가지게 될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천만군민의 가슴에서 세차게 분출되고있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강성대국승리는 확정적이며 이 땅에는 반드시 민족번영의 미래가 휘황찬란하게 펼쳐지게 될것이라는 절대불변의 확신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무한한 격정과 환희에 넘쳐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인민의 리상을 희한한 현실로 꽃피워온 우리 혁명의 참모부 조선로동당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는 향도적력량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다.

혁명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수행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작성하며 인민대중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는 당의 전투적기능과 향도적역할을 떠나서 혁명의 승리와 인민의 리상실현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이것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옳바른 전략전술적령도를 통하여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향도하여온 우리 당활동의 귀중한 경험이며 력사적총화이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당건설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이 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심으로써 이 땅에는 얼마나 눈부신 년대기들이 펼쳐졌던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엄숙히 선포되고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대건설전투가 빛나는 승리로 결속된 1970년대, 80년대속도창조운동과 더불어 평양번영기가 더욱 환희롭게 펼쳐지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며 수풀처럼 일떠선 1980년대, 고난과 시련의 장막을 일시에 밀어내며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된 1990년대, 전국도처에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전고가 련이어 울려퍼지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2000년대…

우리 당령도사에 자랑스럽게 아로새겨져 빛나는 이 승리와 영광의 년대기들을 긍지높이 되새겨볼 때면 위대한 령도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위인상이 숭엄히 안겨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

일찌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때에 우리 당기발의 력사를 감회깊이 되새겨보시며 당의 전투적기능을 높여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실 결심을 굳게 피력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날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들은 얼마나 원대한것이였으며 자주, 자립, 자위로 우뚝 솟은 불패의 강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내놓으신 전략전술적방침들은 또 얼마나 정당하였던가.

1970년대를 돌이켜보느라면 이 불멸의 년대를 상징하는 거창한 창조물들이 우리의 가슴에 물결쳐온다.

길길이 솟구치는 서해바다우에 장엄하게 뻗어나간 은률광산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 김철과 무산사이의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

새로운 천리마속도인 70일전투속도창조과정은 사람들에게 걸출한 위인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셔야만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197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우리의 혁명진지를 반석같이 다지고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우리 혁명의 이 중대한 요구를 누구보다 깊이 절감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속도전에 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이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력사적인 70일전투를 몸소 발기하시였다.

력사적인 70일전투, 그것은 우리 당이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경제건설에 구현하기 위한 전례없는 사상전이였으며 경제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일대진공전이였다.

70일전투기간 비범한 예지로 전투의 중심고리를 밝혀주시고 그 승리의 열쇠도 마련해주시며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력사적인 70일전투의 승리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된것은 우리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거세찬 열풍속에서 서해갑문, 1만t프레스, 검덕의 제3선광장이 그 거대한 웅자를 련이어 펼치고 평양번영기와 더불어 주체사상탑,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청류관, 빙상관, 문수거리, 안상택거리, 광복거리 등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세인을 경탄시키며 일떠선 1980년대의 기적들은 사람들에게 우리 장군님의 천재적인 령도적풍모를 또 얼마나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는가.

주체69(1980)년에 진행된 당 제6차대회에서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웅대한 경제건설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대진군운동을 벌릴것을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 천리마대진군의 력사를 계승하여 새로운 대고조력사를 창조하는 길에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실현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포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몸소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발기하시고 김철의 로동계급이 그 운동의 봉화를 추켜들도록 하시였으며 검덕의 광부들이 그 시범을 창조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10년이 걸려야 한다는 검덕의 제3선광장건설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도록 하시고 방대한 서해갑문건설을 단 몇해사이에 완공하도록 이끄신데 이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력사적인 200일전투를 몸소 발기하시고 그 전투를 통하여 200일전투속도가 창조되였을 때에는 그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영웅대회를 마련하여주시고 다시한번 200일전투를 벌릴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돌이켜보면 우리 당의 옳바른 전략전술적령도에 의하여 1980년대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억척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경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백개의 중요대상건설이 완공된것은 1990년대 총진군운동의 성과를 담보해주고 인민의 행복을 활짝 꽃피울수 있는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실력이 비할바 없이 과시된 1990년대!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근위병으로 사느냐를 판가름하던 1990년대 중엽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뜻을 받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구상을 해왔으며 그 준비를 갖추어왔습니다. …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고난의 행군시기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대강을 펼쳐주시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념원하신 경제강국을 일떠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온 나라를 종횡무진하시며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시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료원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여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훌륭한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실력은 우리 당령도사에 찬란히 새겨져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오늘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인민의 리상이 찬란히 꽃펴나는 현실은 전국도처에서 련이어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진두에 계시기에 조선로동당의 백승의 력사는 끝없이 빛날것이며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계기로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은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자기의 위력을 다시한번 남김없이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김 동 철

영원한 삶의 품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더불어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는 천만군민의 마음이런가 내 조국강산에 울려퍼지는 노래가 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우리 당을 진정한 어머니품으로 굳게 믿고 따르려는 천만군민의 영원한 신념의 맹세가 력력히 어려있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

부르면 부를수록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대로 우리 당을 명실공히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끝없는 심혈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가 가슴뜨겁게 안겨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자기들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성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침략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지고있던 주체84(1995)년 어느날이였다.

그날 우리 혁명의 흘러간 년대들에 창작된 명곡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회억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에 대한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 노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에만 있는 고유한 노래이다. 이런 노래는 세상에 우리 나라밖에 없을것이다. 이 노래가사에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당의 인덕정치의 기본을 잘 형상하였다. …

음미할수록 세상에 부럼없는 참된 삶과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이 절절히 흘러넘치는 노래였다.

격동된 심정을 누르지 못하는 일군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전체 인민이 다 부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사회주의를 버린자들에게 우리 인민이 당과 수령을 어떻게 노래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일군으로 하여금 수십년동안 건설한 사회주의를 하루아침에 말아먹은 일부 나라들의 피에 절은 교훈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수령을 온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람들모두가 화목하게 사는 우리 조국처럼 인민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넘쳐흐르는 나라는 없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에서만 울려퍼질수 있는 충정의 노래, 신념의 노래이다.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있는 존재로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노래는 오늘도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그렇다.

인민은 세상에 대고 목청껏 노래한다.

세월의 한끝까지 태양의 빛으로 영원할 위대한 품,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이 있어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며 우리는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행복한 인민이라고.

로 현 찬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기며 길이 빛내여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는 답사자들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에서— 리 진 명 찍음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서

충실성의 기본척도

경애하는 장군님은 인민대중의 지지속에 혁명하는것을 가장 큰 보람과 행복으로 여기시며 거기에서 더 큰 힘을 얻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어느해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화하고 혁명적군중관점을 더욱 철저히 세우며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현시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단순히 그들의 사업작풍과 방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충실성에 관한 문제이라고, 혁명의 지휘성원들에게 있어서 대중의 지지를 받는것이 기본이라고,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는것은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일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이 곧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척도로 된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군중속에 들어가라!

언제인가 일군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려운 때일수록 당선전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조성된 정세도 알려주고 우리앞에 가로놓인 난관에 대해서도 알려주며 그것을 뚫고나가기 위한 혁명의 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1970년대 당선전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 대하여 추억하시였다.

그때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교양사업을 참신하고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그들은 아래에 내려갈 때에는 농립모를 쓰고 수수한 옷차림에 장화를 신고 논밭에 들어가 농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당정책을 해설해주었다. 그들이 농민들과 허물없이 아무런 간격도 두지 않고 생활하였기때문에 농민들은 그들이 당선전일군인지 전혀 몰랐다. …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사업해온 지난 시기의 당선전일군들에 대하여 추억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그렇게 일하여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오래전에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을 본분으로 여기고 일상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교양하는 일군이 리상적인 당선전일군이라고 하였다고,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그런 리상적인 당선전일군이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군중속에 들어가라!

바로 이것이 우리 장군님의 뜻임을 일군들은 심장깊이 새기였다.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주체86(1997)년 1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살며 일해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사업에서 인민들이 아파하는 문제, 걸린 문제를 푸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인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면 혁명이 전진하고 나라가 흥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인민의 배척을 받고 자멸을 면할수 없게 된다는것은 세계사회주의운동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은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이였다.

본사기자 백 영 미

특장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불멸의 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천명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월계획에 반영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하도록 하고있다. 실속있는 교양사업을 통하여 탄광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건설과 활동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깊이 절감하고있다.

김 철 혁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뜨거운 조국애를 심어주시여

김 익 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벌리던 나날들을 돌이켜보느라면 당시에는 비록 례사로이 흘려보냈던 일들이 크나큰 충동을 주면서 새로운 감회를 불러일으키는 때가 많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1941년 가을 내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함경북도 경원군 신건리 연봉에 나왔을 때 있었던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봉에 나오신것은 륙읍일대에서 활동하고있는 소부대와 소조 및 혁명조직들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변화된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소부대와 소조, 혁명조직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기 위해서였다.

항일혁명투쟁사에 또 하나의 력사적기록을 남긴 연봉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나는 다만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음걸음 우리들의 가슴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신 이야기를 여기에 적으려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부대를 친솔하시고 조국땅이 건너다보이는 하구동부근의 수림에 도착하신것은 1941년 10월 초순 어느날 날이 밝을무렵이였다고 생각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계근무를 빈틈없이 조직하신 다음 두만강 상류와 하류쪽에 정찰을 파견하시였다.

그날은 마침 추석날이여서 하구동에서 룡당쪽으로 가는 나루배를 타고 강건너 조국땅으로 산소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강조직을 위하여 온 오중립동무를 그들속에 끼워서 경원군 신건리에 내보내시였다.

그러시고는 대원들과 함께 수림속에서 낮시간을 보내시며 추석명절에 대하여, 조국땅의 수려한 경치와 민족적풍습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였다.

정찰나갔던 대원들과 오중립동무가 돌아온것은 그날 저녁녘이였다.

그들로부터 두만강연안의 국경경비상태와 도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날이 어둡자 대오를 이끄시고 강기슭으로 나가시였다.

나는 그때 강기슭에서 정말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였다.

하늘중천에 달이 밝은데 강우에는 또 홰불을 들고 고기잡이를 하는 배들로 하여 별무리가 내려앉은듯 하였다.

조국땅에 들어설 때마다 매번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되군 하지만 그때의 광경은 정말 인상깊은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둥그래진 우리들에게 봄과 가을이면 동해바다에서 연어, 송어, 황어떼가 두만강으로 오르기 때문에 저렇게 불을 밝히고 그물로 고기잡이를 한다고 설명해주시였다.

잠시후 불을 밝힌 5척의 고기배가 우리들이 대기하고있는 강기슭으로 다가왔다.

오중립동무가 담배불로 신호를 보내자 저쪽에서도 담배불이 번쩍하였다.

오중립동무로부터 혁명조직에서 마련한 배라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강가에 다가가시여 배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배가 강한복판에 들어서니 그 주변에 여러척의 배들이 떠있었다.

긴장해있는 우리들에게 오중립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을 호위하기 위하여 이곳 소부대성원들이 탄 배들이라고 말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연어잡이를 하는 배처럼 홰불까지 켜들고 이곳 소부대와 혁명조직의 호위를 받으며 유유히 강을 건너갈 때의 인상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강을 건너온 우리는 이곳 소부대책임자의 안내를 받으며 자갈과 모래가 섞인 강변을 가로질러 산으로 올랐다.

가파로운 숲속길로 한참 올라가니 평퍼짐한 둔덕의 소나무밭속에 7~8명이 숙영할수 있는 농막 같은것이 보였다.

소부대책임자가 위대한 수령님께 여기가 목적지인 연봉밀영이라고 말씀드렸다.

우리는 그날 밤 이 농막에서 휴식하였다.

추석날이라 그날 저녁 달은 유난히도 밝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막에서 나오시여 천천히 숲속을 거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호위하던 나도 주변을 살피면서 그이의 사색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조용히 뒤따랐다.

그때였다. 숲속 저쪽에서 누구인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가벼운 바람결에 은은히 들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래소리가 울리는 곳으로 한걸음한걸음 다가가시였다.

맑게 개인 가을하늘에 둥실 솟은 보름달이 온 강산을 밝게 비치는데 농막에서 얼마간 떨어진 숲속의 소나무에 기대인채 이곳 소부대의 한 나어린 대원이 쟁반같은 달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고있는것이였다.

그 대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까이 오신줄도 모르고 깊은 감회에 잠겨 노래를 계속 불렀다.

애틋한 감정을 자아내는 노래였다.

그 노래를 듣느라니 나는 이날 낮에 산소를 보러 숱한 사람들이 산에 오르던 광경이 떠오르면서 절로 고향생각이 났다.

그러나 나는 총을 잡고 싸움길에 나선이상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긴장성이 해이되여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그 대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나는 어떻게 할것인가 망설이다가 아무래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시였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하겠다고 생각되여 그에게로 다가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나를 제지하시며 조용하라고 손짓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잔디밭우에 앉으시여 달을 바라보시며 노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것이였다.

노래를 끝내고 머리를 돌리던 그 대원은 그제야 위대한 수령님을 알아보고 몹시 당황해하며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불러 가까이 앉히신 후 동무의 노래소리를 들으니 어린시절 만경봉에 올라 추석달을 쳐다보며 동무들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던 생각이 난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소박한 념원이 담긴 좋은 노래요. 원쑤에게 짓밟힌 조국땅에서 추석달을 쳐다보며 그 노래소리를 들으니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형제들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지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초가삼간이나마 알뜰하게 지어놓고 량친부모를 모셔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는것이 우리 인민의 소박한 념원이요. 우리는 인민들의 그 념원을 하루빨리 풀어주기 위해 이곳에 온것이요.

그러시고는 인민의 념원이 꽃필 광복의 새날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날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우자고, 그리하여 추석날이 와도 즐거움을 모르고 하늘에 걸린 달을 처량히 바라보며 소박한 자기들의 념원을 하소연하는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안겨주자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밤 밝은 달을 바라보며 나는 오래도록 고향생각을 하였다.

잠들수 없는 밤이였다.

이튿날새벽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일어나시여 조국의 정기가 어린 맑은 샘터에서 세면을 하시고 연봉마루에 오르시였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빼곡이 들어선 연봉마루에는 돌로 쌓은 봉화터가 있었다.

옛날 외적들의 침노를 알리기 위해 불을 지피던 우리 선조들의 애국의 넋이 스민 사연깊은 봉화대에 서니 나의 마음은 감개무량하기 그지없었다.

이곳 소부대책임자로부터 지형설명을 들으시며 조국의 아침풍경을 부감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만강연안의 륙읍땅은 정말 잊을수 없는 고장이라고 하시며 8년전 류다섬에 나오시여 그곳 사람들이 올린 국수와 갓김치를 잡수시던 일도 회고하시고 두만강 굽이굽이와 강변의 산골짜기마다에서 조국해방을 위해 피흘리며 싸우다 쓰러진 혁명동지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얼굴에는 뜻깊은 고장과 잊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숭엄히 어려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연봉마루에서 농막으로 내려오니 이곳 소부대동무들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였다.

식탁에는 조국의 향취가 풍기는 갖가지 음식들이 놓여있었다.

그중에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이채로운 음식이 있었다.

새빨간 앵두알 같은것이 접시우에 소담하게 담겨져있었는데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다.

나는 처음 보는 음식인지라 무척 호기심이 나서 바라보았다.

나의 이런 심정을 헤아리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접시우에 놓인 빨간앵두 같은것이 무엇인지 아오?》**라고 물으시는것이였다.

내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자 이번에는 다른 동무들에게 다시 물어보시였다.

그들도 역시 머리를 기웃거릴뿐 아무 대답도 올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아마 처음 볼수도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연어알로 만든 절임인데 빛같이 고울뿐아니라 맛이 좋다고 하시면서 손수 저가락으로 집으시여 우리들에게 권하시였다.

그것을 먹어보니 정말 별맛이였다.

우리들이 모두 맛이 좋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바다와 강에 연어, 송어와 같은 고급어족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이 소박한 식탁이 해방연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우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아침식사를 하면서 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삼천리금수강산내 나라를 기어이 찾을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애국심은 결코 절로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투장에서는 물론 행군길과 숙영의 밤 그리고 조국의 산천과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놓고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조국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빼앗긴 조국을 찾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피어린 항일혁명의 불길속을 헤치며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워온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조국에 대한 그 열렬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성은 이처럼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키워주신것이였다.

례사로이 흘러간 나날들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신 그 숭고한 조국애는 오늘 우리 인민들모두의 마음속에 활짝 꽃펴나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나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라고 노래하면서 자기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따라 한없이 귀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빛내여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성과에 고무되여 모든 부문에서 일대 혁신

증산의 불길을 지펴올린 힘있는 정치사업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은 온 나라를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소식이 전해진 이후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는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하다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국방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가 잘한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소식을 놓고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자신부터 장군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의 정으로 심장을 펄펄 끓이며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위대성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간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정치사상사업의 원칙적요구입니다.》

지난 8월말 어느날이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류달리 뜨거운 생각을 금치 못하고있었다.

텔레비죤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소식에 접한 기업소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던것이다.

《전국각지를 그처럼 초강도강행군으로 현지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에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으니 세상에 우리 장군님처럼 조국과 인민, 인류자주위업을 위하여 그처럼 헌신하시는 절세의 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장군님 계시여 강성대국승리를 선포할 그날이 눈앞에 박두해오고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것은 련합기업소 지배인이 젖어든 목소리로 터치는 말이였다.

(기업소를 거듭 찾아주시며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꽉 차있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어주자!)

이렇게 생각한 당책임일군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대외활동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실속있게 진행하겠는가 하는데로 사색을 심화시켜나갔다.

그 과정에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심도있게 진행할 방안을 찾게 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이번에 조중친선의 새로운 장을 얼마나 감동깊이 아로새기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는가 하는것을 우리 일군들부터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에서 격식과 틀이 없이 위대성선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의 모임에서 당책임일군은 이렇게 강조하여 모두에게 비상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데 기초하여 자기부터 솔선 대고조전투로 끓어번지는 5월17일공장을 맡고나갔다.

현장에서 당책임일군은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 자랑과 긍지를 안고 올해에도 돌격전투를 벌려 2호산소용융로를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주체철생산을 다그쳐나가는 로동자들과 일손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나갔다.

당책임일군은 특히 작업의 쉴참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펼쳐놓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발자취가 뜨겁게 슴배여있는 길림육문중학교를 비롯한 곳곳을 돌아보신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설득력있게 해설해주었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는 로동자들에게 더 많은 주체철을 생산하는것으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하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다른 일군들도 철강재증산투쟁으로 들끓는 전투장들을 하나씩 맡고나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로정도를 통한 교양사업, 장군님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한 구호를 통한 교양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해나가면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송풍을 드세차게 하였다.

자나깨나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철강재증산투쟁을 벌려나가는 성강의 로동계급은 장군님의 대외활동업적을 더 높은 철강재증산으로 빛내여나갈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한결같이 떨쳐나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외활동업적을 길이 빛내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고 치밀하게 진행해나가는 이곳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 일본새에 의하여 철의 기지 성강에서는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석탄생산성과 계속 확대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소식을 무한한 격동속에 접한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넘쳐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아래 그 어느 탄광에서나 또다시 중국방문의 길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보다 큰 석탄생산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떨쳐나선 일군들과 탄부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 자랑찬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우리와 만난 련합기업소 기사장 박수용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번 중국방문소식은 일군들과 탄부들에게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방문이후 봉천탄광과 조양탄광, 자강도공급탄광과 개천탄광, 원리탄광과 신립탄광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아래 모든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실적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입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번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세계적인 반향에 대해 일군들과 탄부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보다 큰 석탄생산성과로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장마가 계속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봉천탄광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면서 장마철생산대책을 철저히 세워 탄광들에서 갱안에 물이 차오르는족족 뽑아내도록 함으로써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이 봉천탄광을 비롯한 주요탄광들에 내려가 걸린 문제를 풀어주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하여 높은 석탄생산실적이 기록되게 하고있다.

봉천탄광에서 생산능력확장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방문소식에 접하고 석탄생산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며 증산의 돌파구를 과감하게 열어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자강도공급탄광과 조양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 앞장선 이곳 탄부들은 7월과 8월에도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대여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특히 조양탄광에서는 채탄중대별, 굴진소대별사회주의경쟁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게 하였다.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는 원리탄광이 앞서나가고있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신립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면서 줄기찬 전투를 벌려 8월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기세로 지금 생산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고있다.

개천탄광기계공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보장단위들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탄차와 전차대치차, 소치차를 비롯하여 많은 량의 탄광설비부속품을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주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대외활동업적을 보다 큰 석탄생산실적으로 빛내여갈 한마음을 안고 대고조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위대한 장군님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소식에 접한 크나큰 격정을 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본사기자 장청일 찍음

협동벌에 넘치는 애국의 열정

동림군에서

동림군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업전선을 지켜선 긍지드높이 조중친선관계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을걷이준비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청송, 월곡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그 어느 협동농장들에서나 탈곡기개조와 수리정비에 힘을 넣어 그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기계와 농업생산설비의 리용률과 가동률을 높이자면 그에 대한 수리정비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군일군들은 장군님의 불멸의 대외활동업적을 가을걷이준비성과로 빛내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협동농장들에서 탈곡기개조와 수리정비를 짧은 기간에 해내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들에서 탈곡기개조와 수리정비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기술자, 기능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였다.

협동농장들의 탈곡기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군일군들은 자재와 부속품보장대책을 세우면서 탈곡기개조와 수리정비를 제때에 하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이 탈곡기들을 개조, 수리정비하는데 필요되는 철판, 용접봉, 베아링, 피대 등 여러가지 자재와 부속품들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청송협동농장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이 탈곡기를 개조하여 탈곡능력을 높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월곡, 읍협동농장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도 본때를 보이고있다.

이곳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내부예비도 찾아내고 보다 합리적인 방도도 내놓으면서 탈곡기를 개조하고있다.

통산, 산성협동농장에서 탈곡기수리정비를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 농장들에 나간 군일군은 탈곡기수리정비를 잘해야 귀중한 낟알을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털어낼수 있다고 하면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기술자, 기능공들은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탈곡장치, 정선장치, 동력전달장치들을 수리정비하는데 품을 들이고있다.

청강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탈곡기수리정비를 손색없이 해나가고있다.

탈곡기개조와 수리정비에서 성과가 오를수록 군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외활동업적을 더욱 빛내일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예비부속품을 미리 마련해놓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현실적의의가 큰 연구성과를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방문성과에 고무된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주체철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앞자리에 서있다.

김일찬, 라영일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실장 신동혁동무를 비롯한 설계연구집단과 힘을 합쳐 어느 한 단위에 나가 산소열법에 의한 용융환원제철공정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특히 로과학자인 김일찬동무는 주체철생산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새 세대 과학자들과 함께 현지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해나가고있다.

이들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새로운 주체적야금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확고한 신심밑에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과학정보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성능이 높고 원가가 매우 적게 드는 우리 식의 새로운 축받이를 여러 단위들에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윤승태, 윤진명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여러 단위들에 나가 이 축받이로 륜전기재의 기관들과 대형배풍기와 같은 회전기계에서 값비싼 바비트금속으로 만든 축받이도 대신할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정상화를 위한 또 하나의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실장 박사 최호길, 연구사 김동희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 나가 현지일군들과 로동계급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전기기관차생산과 수리에 필요한 견인전동기의 정류자편 등을 압출법으로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밖에도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유연창대직기생산에 필요한 유연창대안내집과 날실감시대를 원만히 생산보장함으로써 방직공업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더 높은 목표에로

단천시 양평리당위원회에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요구이며 대고조시대 일군들의 투쟁기풍이다.

이런 측면에서 분석할 때 단천시 양평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매우 시사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만족을 모른다.》

최근년간 양평협동농장에서도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제2작업반 마을은 더 말할것도 없고 온 농장이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훌륭하게 전변되였으며 해마다 농사를 잘 지어 농장원들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지고있다.

이런 성과는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그것은 이곳 일군들이 농장에 깃들어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갈 불같은 열망을 안고 끊임없이 일감을 찾으면서 대담하고 통이 크게 끝장을 볼 때까지 일판을 벌려나가고있기때문이다.

올해 정초에 있은 한가지 사실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리당비서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의 전투목표를 세우기에 앞서 일군들과 작업반장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담화를 진행하였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농장에서 오래동안 일한것으로 하여 제나름의 일가견을 가지고있었다. 그런데 그들중 일부 사람들의 말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해하는 기색이 력력하였다.

리당비서는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아주면서 우리는 당의 계속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분발하여 농장을 더욱 살기 좋은 무릉도원으로 꾸려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농사차비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면서도 지난해에 시작한 모자이크벽화를 건립하는 사업과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연구실개건사업, 20년전에 종축작업반에 건설하였던 밀폐식돼지우리를 개건하는 사업, 현대적인 살림집건설, 살림집개건보수공사 등 높은 전투목표를 내세웠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영농준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개건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들을 준비하는 사업을 앞세워나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의 일군들은 옳은 경영전략을 세우고 당면한 영농준비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도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확보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하는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창조적인 일본새는 훌륭한 결실을 안아왔다.

농장에서는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벼모를 충실하게 키워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또다시 농사에서 풍년을 이룩할수 있는 돌파구를 성과적으로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참으로 많은 일을 해놓을수 있었다.

본사기자 송창윤

대고조전투장에 더 많은 물동을!

치밀한 조직사업, 전투적인 일본새

평양철도국에서

평양철도국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높은 증송성과로 10월의 대축전을 빛내일 일념을 안고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4대선행부문의 로동계급은 경제강국건설의 척후병, 개척자로서의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대고조의 앞장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껴야 합니다.》

인민경제선행관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지닌 이곳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화물수송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드높은 목표를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하고있다.

철도국에서는 기관차와 화차들에 대한 배차조직과 수송지휘를 잘 짜고들면서 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작전도 면밀하지만 증송투쟁에 떨쳐나선 일군들의 일본새와 사업기풍도 전투적이다.

국의 당, 행정일군들은 기관차대와 객화차대, 중요역들에 내려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것과 함께 중요물동수송에 동원할 화차와 기관차들의 기술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우고있다.

수송지휘처의 일군들과 사령원들은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 오늘의 벅찬 시대에 뚜렷한 위훈의 자욱을 남길 뜨거운 마음안고 더 많은 물동을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실어보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있다.

이들은 화차의 회귀일수를 줄이는것을 긴장한 물동수송문제를 푸는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사색과 탐구를 거듭해나가고있다.

사령원들은 화차들의 머무름시간과 차갈이작업 그리고 짐을 싣고부리는 설비들의 가동상태까지 일일이 알아보면서 더 많은 물동을 실어나를수 있는 방도를 찾아나가고있다.

각 철도분국들과 역들에 렬차들의 도착예보체계를 철저히 세워 빠른 시간내에 상차, 하차조직을 하여 집중수송렬차들의 머무름시간을 훨씬 줄이고있다.

또한 수송지휘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실태를 알아보고 물동확보사업, 화차들의 맞물림과 편성조직사업을 기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어느 한 역에 긴장한 물동수송과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도 철도국의 사령원들은 화차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화차들의 짐을 제때에 부리우고 뽑을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수십량의 화차들을 빠른 시간에 순환하여 높은 수송성과를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일군들이 뛰니 수송실적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다. 서평양기관차대, 평양조차장객화차대, 북창객화차대의 수송전사들이 기관차와 화차수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서평양기관차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오늘의 총공세에서 기적과 위훈만을 새겨갈 불타는 열정으로 기관차수리전투를 벌리고있다.

평양조차장객화차대, 북창객화차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불꽃튀는 수리전투를 벌려 많은 화차들을 수리하여 수송현장에 보내주고있다.

승리의 신심에 넘쳐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사람들은 이들뿐이 아니다. 렬차들의 도착예보체계를 철저히 세워놓고 짐싣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직동역과 천성역, 평천역, 남포역의 수송전사들도 오늘의 총진군속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달리고 또 달리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불길드높이 혁신의 한길로 내달리고있는 이런 미더운 수송전사들이 있기에 두줄기 궤도우에는 증송의 기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강명근

붉은기정신 나래친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기관차조립직장에서

우리는 지금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기관차조립직장에서 혁신의 소식을 전한다. 지금 이곳에서는 기관차조립전투가 한창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무엇보다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분출되여야 하며 대고조의 불길도 경제전선에서부터 더욱 세차게 타올라야 합니다.》

드넓은 현장을 들었다놓는 경제선동의 힘찬 북소리, 곳곳에 나붙은 힘있는 글발들, 육중한 부분품들을 물고 쉼없이 오가는 천정기중기, 강성번영의 래일을 축복하는 꽃보라인양 무수히 흩날리는 용접불꽃…

볼수록 장관이다. 연방 용접봉을 갈아대며 일손을 잽싸게 놀리는 용접공들의 모습도 자랑스럽지만 불같은 열정을 안고 조립전투를 지휘하는 직장장의 모습은 더더욱 인상적이다.

천정기중기가 육중한 전동기를 날라다 내려놓기 바쁘게 조립공들이 숙련된 솜씨를 보인다. 이에 뒤질세라 공구를 억세게 틀어쥔 대차작업반 조립공들의 손에서도 불이 인다.

한쪽에서는 조립공 김철권동무가 차축밑으로 날쌔게 뛰여들어 팔뚝같은 스파나를 재간스레 다루는가 하면 다른쪽에서는 한광성, 리정철동무들이 기중기운전공과의 긴밀한 협동으로 축함을 조립하느라 여념이 없다.

눈깜빡할 사이에 대차 하나를 결합해놓는 이들의 놀랄만 한 일솜씨에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한다. 고조되는 경쟁열기가 온 작업장에 차고넘친다.

도색작업에 열중하는 도장공들의 작업모습은 또 얼마나 미더운가. 이들의 깐진 일본새에 의하여 기관차가 눈에 띄게 자기의 환한 모습을 드러낸다. 차체안에서도 조립전투가 한창이다. 배선작업반과 제동작업반의 조립공들이 기관차를 타고앉아 흥겨운 노래가락에 맞춰 사기를 올린다. 긴장한 눈빛과 신호들이 오고가는 가운데 전기기구들이 순식간에 조립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립공들의 기세는 충천하고 기관차조립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조립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는 이들의 작업모습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동행한 일군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시각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름지어주신 우리 〈붉은기〉 호전기기관차가 조국의 방방곡곡으로 창조와 혁신의 숨결을 이어주며 질풍같이 내달린다고 생각하니 새 힘이 용솟음칩니다.》

들으면들을수록, 보면볼수록 새로운 대고조력사를 창조해나가는 긍지와 보람을 안고 위훈을 떨쳐가는 이곳 로동계급의 불타는 열정이 가슴뜨겁게 느껴진다.

《붕—》 어느덧 조립을 끝낸 기관차의 기적소리가 대고조의 승리를 예고하는 메아리인양 높이 울려퍼진다.

강명일

철길강도를 높여

청진철길대의 일군들과 철길원들이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 렬차의 무사고운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철길대의 일군들이 철길구간들을 밟아보면서 철다리와 차굴, 침목과 자갈다짐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경성철길소대, 승암철길소대의 철길원들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에서 앞장서고있다. 이들은 철길구간들을 정상적으로 돌아보며 사소한 이상현상도 나타나지 않게 철길보수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 기공구와 고착품생산에 필요한 철강재의 많은 몫을 자체로 해결하고있다.

본사기자

일본으로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서사시

서 해 의 노 래

—이 서사시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 삼가 드린다—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수수만년
태고의 바다속에 잠들었던 땅
가없는 수평선우에 솟아난
사회주의 대평야

그 어느 거인의 손길이
날바다를 거머잡아 길들였느냐
그 어느 기적의 힘이
이 땅을 떠올렸더냐

오, 한껏 터치라
서해의 푸른 물결아
행복의 금나락이 파도치고
만복이 꽃피는 천지개벽의 지평선
강성대국의 새 대지를 펼친
위대한 태양의 노래를

1

푸른 바다를 헤가르며
만년성벽인양
아득히 뻗어간 대계도방조제
길들인 파도는
기슭을 쓰다듬으며 은구슬을 뿌리여라

방조제의 억센 팔에 안겨
그림처럼 푸른 주단을 펼친
일망무제한 대지
풍치아름다운 양어장이며
서리꽃이 핀듯 눈부신 소금밭들

장관이여라
볼수록 멋이여라
날바다를 밀어내고 태여난 새땅
넓어진 조국의 기슭이여
달라진 조선의 지도여

이 아침 우리 장군님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사회주의선경으로 펼쳐진
대계도의 광활한 전경을 굽어보시여라

볼수록 장쾌하고 흐뭇한 서해선경
내 나라 국토가 넓어진 대경사
그 기쁨이 클수록
더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이여

얼마나 좋으랴
수령님과 함께
저 끝없는 방조제를 걸으며
이 기쁨을 나눌수 있다면
푸르른 논벌이며
물고기 욱실거리는 축양장을
다 보여드릴수 있다면

아득한 저 멀리
짙은 운무속에 잠긴
서북단 한끝
무명평, 신도, 마안도…
간석지건설의 첫 자욱을 새겨가시던
못 잊을 수령님 모습

어찌 잊으랴
억수로 퍼붓는 폭우속에
간석지건설의 초행길을 열어가시는
수령님을 모시고
감탕길을 헤쳐가던
수십년전 못 잊을 8월의 그날을

창대같은 비발속에
사납게 뒤채기는 풍랑
안된다고
이런 날엔 못가신다고
일군들 만류해나섰건만

인민을 위한 일인데
이런 날 저런 날을 다 가리면 언제 가겠는가고
어뢰정을 타시고
폭우를 헤쳐 풍랑을 넘어
비바람에 갈숲이 몸부림치는
섬기슭에 오르신 수령님

비물에 옷자락 적시시며
발목까지 빠지는 진창길을
힘겹게 헤쳐가신
그 자욱자욱

한치한치의 조국땅이
얼마나 귀중하시였으면
우리 수령님
밀물썰물이 무섭게 들고나는
이 나라 서북단 외진 섬 한끝까지
다 밟아보시였으랴

혈전만리 눈보라
전화의 불비를 헤쳐
찾아주고 지켜주신 땅
오늘은 그 땅을 넓혀주시려
폭우속을 헤쳐가신 수령님의 그 모습
해가 간들 잊으랴
세월이 간들 잊으랴

그날의 그 자욱을 따라
다사도로부터
섬과 섬들을 이으며
대계도로, 철산반도로
장엄하게 뻗어간 수십리 방조제

수령님 쌍안경으로 바라보신
그날의 수평선이
오늘은 만복의 지평선으로
그날의 이름없던 무명평이
행복의 비단섬으로 되였거니

수령님과 땅
수령님과 조국
그 애국의 한평생을 다 그려보시며
장군님 뜨겁게 하시는 말씀

—간석지건설의 발기자는
우리 수령님이십니다

아, 수령님과 함께라면
수령님과 함께 걸을수만 있다면
비뿌리는 험한 길
천리라도 만리라도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걷고싶으신
장군님의 그 심정이여

비오는 날에도 눈오는 날에도
수령님과 함께 감탕길을 헤치시던
그날의 그 걸음으로
이 나라 간석지건설의 력사를 이끌어오신
우리 장군님

끝없는 강행군길
서해천리를 달리실 때에도
간석지벌을 걸으시던 수령님 생각
병사들의 섬초소를 찾으시여도
변모될 조국의 해안선을 그려보시던
수령님 생각

그날은
온 나라 인민들이
수령님 추억으로 가슴젖던
7월 8일
그날도 수령님 생각 간절하신
장군님 마음속엔
대계도간석지가 무겁게 안겨있었나니

서해의 간석지를
하루빨리 옥토로 만들어
거기서 나오는 쌀로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자고 말씀하시던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그 음성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고
나라일이 아무리 분망해도
언제나 집무실에
간석지건설전망도를 걸어놓고
늘 마주하시던 그 모습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그 음성 그 모습
정녕 이 나라 간석지건설력사는
우리 수령님의 력사
인민을 위해 끝없는 사랑을 바치신
이민위천의 력사가 아니던가

그이의 마음속엔
얼마전에 다녀온 대계도간석지건설전투장
등짐으로, 손달구지로
돌을 나르고 장석을 입혀가던
불같은 그 모습들

수령님 무어주시고 키워주신
자력갱생의 부대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 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한다는
그 강의한 정신력으로
수령님 유훈을 꽃피워가는 불굴의 투사들

그래서 더 정이 가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
그래서 더 도와주고싶은
대계도의 아들딸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

소리없이 깊어가는 밤
뜨거워지는 마음을 안으시고
금수산기념궁전 하늘을 우러러
수령님과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는
우리 장군님

—수령님
온 나라를 불러일으켜
대계도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국방위원회 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장군
나도 같은 생각이요
완공된 제방우를
장군과 함께 걸어보고싶소

쩡—
가슴에 울려오는
수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장군님은 새날의 창문을 여신다

２００８년 7월 9일
국방위원회 명령
《대계도간석지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하여》

대계도로!
대계도로!
이 나라 길과 길들은
대계도의 제방으로 이어졌다
세멘트와 철근을 만재한
전용렬차들이
무쇠바퀴에 불꽃을 튕기며
서해전역으로, 서해전역으로!

대계도로!
성, 중앙기관들
과학자, 기술자들
륜전기재들과 설비들이
날바다와 대결전을 벌리는
서해전역으로, 서해전역으로!

크나큰 그 사랑을 받아안고
장군님, 장군님을 부르며
목메여 흐느끼는 대계도사람들
가없는 바다우에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해풍에 부대끼고
소금물에 절며
날바다와 맞서 끄떡없던 억센 가슴들
울며 흐느끼며 목메여 터치는 그 환호성
장군님의 사랑은
만년방조제보다 더 크나큰
신념의 산악을 안겨주었거니

오오, 수십리 대계도간석지 방조제여
너 그 사랑에 받들려 솟았기에
너 그 믿음에 뿌리를 두었기에
만리대양을 맞받아 끄떡없이
그처럼 강대하게
그처럼 거창하게 서있는것 아니냐

기뻐하라
자랑하라
산줄기마냥 뻗은 장엄한 방조제여
드넓은 간석지 대평야를
한가슴에 안으시며
너의 전망대에
위대한 장군님 서계신다

억세게 뻗친 방조제의 팔에 안겨
물고기떼 욱실거리는 양어못들
높이 쌓이는 눈부신 소금산
물결치는 푸른 벼바다

한개 군의 면적과 맞먹는
수천정보의 새땅
걸어도 걸어도 끝없는
만복의 대평야

너는 다만 땅이 아니다
너는 천년을 만년을 살아갈
인민의 삶의 터전
장군님 손길에 받들려
더 아름다와지고 더 넓어진
영원한 수령님의 품

아, 장군님은 수령님과 함께
더 좋아질 래일의 전망을 이야기나누시며
대계도전망대에 서계신다
해빛같은 그 미소를
대계도의 지평선에 뿌리신다

2

한장
또 한장
장군님은 번지신다
대계도격전의 영웅서사시를 아로새긴
사연깊은 전투기록장을

그 갈피속엔 숨쉬고있어라
길길이 날뛰는 파도와 싸우며
해풍에 그슬고
짠물에 절며
감탕길에 묵묵히 삶의 자욱 새겨온
간석지사람들의 빛나는 위훈이

깊은 생각에 또 한장
풍랑이 덮쳐든 갑판우에
쇠바줄로 몸을 휘감고
생사판가리 결전속에 제방을 지켜가던
그 강의한 모습들

한치한치에
피땀을 얹고 심장을 고인 제방길
바다를 얼쿠는 강추위속에서
마지막 솜옷까지 홰불로 태우던
엄혹한 겨울밤들이여

바다밑에 깔린
그 하나하나의 돌
감탕속에 묻힌 자욱자욱
다 더듬어보시고
다 헤아려보시는
우리 장군님

뜨거운 심중속에
그이 더듬으시는
그날의 격전장
전투의 불이 튀던 채석장의 갱도여

캄캄한 갱속
등불로 정대를 비쳐가며
쩡쩡 울려가는 함마질소리
피흐르는 손에 붕대를 감고
한치한치 암벽을 뚫고가던 모습들

그날은
대발파를 위한 도갱굴진의 마감날
화약내자욱한 갱도속엔
채 튀지 않은 폭약 하나
시간은 사정없이 흐르는데

돌격대소대장 뛰여들었다
끊어진 도화선에 불을 달고
바위돌을 부둥켜안은채
그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거니

날리고 쏟아지는 돌의 폭포
돌, 돌이여
너는 무엇이여서
대계도의 아들들은 꿈속에서도 너를 찾으며
꽃다운 삶과 아낌없이 바꾸었더냐

어이하여
불타는 고지에서 피타게 찾던
탄약처럼
어디서나 돌을 찾았고
쓰러지면서도 한몸 장석이 되여
저 제방우에 얹히길 바랐더냐

사람들이여
그처럼 불같던 젊은 가슴
돌을 안고 쓰러진 소대장의 품에서
우리 더듬어 찾은
하나의 시구절을 그대로 적노라

—그 누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것 무엇인가 물으면
나는 서슴없이 말하리
그것은 돌이라고

나의 피땀이 묻은 돌
나의 소원이 깃든 귀중한 돌
너 그 얼마이면
저 제방을 다 쌓을수 있을가
언제면 이 제방길따라
장군님 품에 달려가 안길수 있을가

돌,
뭇사람들의 발밑엔
무심히 밟히는
흔한 돌이여도

대계도의 돌, 그것은
장군님께로 달리는 그리움의 징검돌
제방길에 억척같이 고여지는
서해용사들의 붉은 심장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제방을 받드는 돌
그 돌처럼 말없이 진정을 바쳐
조국을 받드는 간석지사람들의
깨끗한 의리여
순결한 량심이여

그 누가 돌이 말없다 했던가
대계도의 돌,
그 하나하나에선
장군님 품에 삶의 피줄기처럼
제방길을 이어온 간석지용사들의
결사관철의 노래가 울리고있나니

말하지 말라
대계도제방을 쌓는것
그것이 다만 건설이였다고
그것은 땅을 넓혀가는 판가리결전
그 한치한치를 위해
대계도영웅들은
또 하나의 피어린 전쟁을 치르었다

치렬한 투쟁의 그 나날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장군님 보내주신 노래
《간석지에 새겨가는 청춘의 마음》

강선땅에
대고조의 불을 지펴주고 돌아오신
１２월의 그 밤
그 불을
서해바다에 제일먼저 지펴주시며
장군님 마음속에 조용히 부르신 노래여

이렇게 만년제방도
장군님 심장과 이어져있었거니
신념과 의지로 쌓아가는 이 제방길을 따라
장군님께로 달려가는 대계도사람들
한몸 돌이 되여 제방을 받들지언정
다른 길을 몰랐어라

갈매기도 죽지부러져
격파에 삼키우고
바위돌도 거센 물살에
총알처럼 튀여나던
치렬한 격전장

제방이 전진할수록
좁혀지는 물목으로
한번에 드나드는 물량
２억 ５，０００만ｔ
수위차 ３．６ｍ
류속 초당 8ｍ

그것은 쏟아지는 폭포
그것은 쏜살같은 격류
거대한 와류속에
조약돌같이 휩쓸려가는 집채같은 바위돌
한구간을 전진하면
두구간 세구간
뭉청뭉청 떨어져나가는 제방

한치 또 한치
장군님께로 가는 길이 끊어지는것 같아
간석지에 새기신 수령님의 발자취가
바다물에 씻기는것 같아
가슴이 터져오던 그 마음들

날뛰는 파도를 피해 쉽게 가는 길은
제방을 에돌아 쌓는 길
허나 그것은 설계도를 수정해야 하는것
그것은 변심
흔들린 신념
휘여든 의지

—아니다
점 하나
선 하나도 드틸수도 에돌수도 없다
그것은 수령님 직접 그어주신 선
살아도 죽어도 오직
수령님 그어주신 이 법선을 따라
장군님 품으로 곧바로 가야 한다!

몸과 몸을 바위돌처럼 철근으로 묶어서라도
제방의 직선길을 끝까지 지키자는
결사관철의 불같은 맹세
불덩이같이 달아오른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뛰여드는듯
소용돌이속으로 쏟아져내리는 돌무지들

일군들이 앞장섰다
당원들이 일떠섰다
온 대계도사람들이
결사옹위의 붉은 성새로 솟았다

그 마음과 마음들에 받들려
제방길은 한치도 드팀없는 직선으로
수령님 그어주신 자리길을 따라
장군님 품으로
장군님 품으로 곧추 뻗어갔거니

장엄히 일떠선 대계도방조제여
너는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흔들림없는
절대불변의 신념의 산줄기
장군님 품으로 잇닿은
승리의 직선주로

이 한구간 한구간을 위해
한몸 그대로 결사옹위의 성새가 된
불굴의 모습들을
서해여, 너 영원히 비껴안고 설레이라

대계도, 가차도, 대다사도…
잊을수 없는 격전터들을
한품에 안아보시며
선군조선에 안아온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애국심이 없이는 해낼수 없는 일이라고
뜨겁게 하시는 장군님 말씀이여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은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
백절불굴의 투사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소

자랑스러우시여
온 세상 보란듯이 내세우고싶으시여
돌을 안고 달리던 그 가슴가슴들에
영웅의 금별메달을 달아주신
우리 장군님

격정의 파도가 굽이치던
수훈식의 그날
간석지 새땅을 위해 젊음을 바친
돌격대소대장의 어린 아들
그 작은 가슴에도
아버지의 금별메달이 빛나고있었다

대계도의 어린 아들아
장군님의 축복속에
조국의 축복속에 자랑높이 걸으라
네 아버지가 피로써 안아올린
조국의 새땅을 마음껏 밟으며
창창한 미래로 활개쳐가라

아, 위대한 령장의 품에서
결사관철의 투사로
결사옹위의 영웅으로 자란
애국의 대오, 신념의 대오여

장군님 안겨주신
산악같은 그 믿음
그 담력과 배짱이면
바다가 아니라 대양도 막으리

승리의 광장으로 들어서는
화선의 병사들마냥
파도와 해풍을 헤쳐온 붉은기를 휘날리며
대계도영웅들이 굽이쳐간다
제방길을 따라 장군님 품으로 간다!

3

해솟는 바다
설레이는 파도에 추억을 실으시며
불어오는 해풍에 옷자락 날리시며
서해격전의 혼적 력력한 제방을
걷고 또 걸으시는 장군님

력사의 증견자인듯
승리의 기념비인듯
대계도간석지용사들이
한자두자 새겨넣은 신념의 글발앞에서
조용히 발걸음 멈추시여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만년구조물의 기폭에 새긴
그 글발에서
파도의 장벽을 밀어내고
한치한치 제방을 쌓아가던
대계도용사들의 위훈을
뜨겁게 안아보시여라

—여기구만
바로 이 자리가
그처럼 간고했던 격전장이였지…
나직이 물으시는 그 음성에
철썩—처절썩 바다가 대답하는가
제방우에 휘날리는 붉은 기발이 대답하는가

너무도 모질었던 해일의 밀물
너무도 횡포한 재난의 썰물
광란하던 바다는 흐름을 멈추었어도
추억의 파도야 어이 멈추고
격정의 물결이야 무엇으로 잠재우랴

말하라, 이야기하라
폭풍속에서 파도속에서
로동당시대의 기적을 창조한
바다의 불사조들
그 심장에 안고산 불타는 신념을

물어보자 서해여
어쩔수 없는 만유인력에 끌리여
밀물과 썰물에 비껴흐르던
너의 단조로운 흐름에
그 누가 장엄한 기적의 대교향악을
실어주었더냐

그날은 폭풍의 밤
다급하게 울리는 해일경보
사나운 재난의 말기를 추켜들고
제방에 덮쳐드는 해일의 장벽

길길이 날뛰는 파도의 산악이
제방넘어 배들을 뿌려던졌다
피땀으로 쌓아올린 제방을 들부시며
바다가 통채로 밀려들었다

심장이 멎는가
억장이 무너져내리는가
가슴을 치며 제방을 치며
바다사나이들이 울었다
하늘을 원망하는 그 목소리마저
사나운 파도가 삼켜버렸다

—달의 인력을 차단하기 전에는
이 제방을 막지 못한다
외국의 간석지전문가들은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대계도의 엄혹한 난관을 계산하며 《권고》했다
다른 나라와 협력하든가
아니면 때를 기다리라고

시련의 극한점
자연과 인간의 판가리대결장에서
대계도아들들이 운명의 하늘
운명의 어버이를 찾는 그 부름소리
—아, 장군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먹장구름을 헤가르며
광란하는 파도를 짓누르며
해살처럼 심장과 심장들에 울려오는
장군님의 그 음성

—일어나라
바다를 막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가 되라
나의 미더운 아들딸들아!

그 어떤 꿈도 아니였다
그 어떤 환상도 아니였다
그것은 분명 귀전에 쟁쟁한 그 음성
그것은 분명 따뜻한 어버이 손길

가장 어렵고 힘겨울 때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부르듯이
장군님을 찾고 부르며 일떠선 사람들

전투장엔
홰불의 대하가 흘렀다
그리움의 노래가 날바다우에 울려퍼졌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난관과 시련이 클수록
더더욱 간절해지는 그리움
그것은 그 어떤 파도도 해일도
달의 인력도 이기는
무한대한 정신력의 원천

산과 섬, 땅을 들어옮겨
날바다를 메우는 발파소리 발파소리
사나운 파도를 짓눌렀다
바다를 끓이는 대고조의 거세찬 용암이
기적의 산악 대계도의 만년제방을
날바다우에 안아올렸다

얼마나 미더운 모습들인가
만유인력의 법칙은 알아도
무진막강한 조선의 국력을 모르는 자들에게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조선말이 아니라는 불변의 진리를 증명해준
위대한 기적의 창조자들

온갖 어지러운것은
썰물에 다 실려가고
깨끗하고 열렬하고 아름다운것만이
밀물에 실려오는 이 기슭
대계도의 파도소리, 파도소리

서해갑문건설과 맞먹는
대계도간석지건설의 완공은
당대표자회에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장군님

—대계도간석지의 용사들은
조선이 결심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는것을
만천하에 시위하였습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이것이 대계도건설대전의 총화입니다

감격의 파도인가
격정의 폭풍인가
해풍에 마르고 탄 얼굴에 솟구치는 눈물
감탕내 배이고 땀이 스민
옷자락을 적시는 격정의 눈물이여

오, 그 모습은 그대로
설사 하늘땅이 통채로 뒤집힌대도
혁명의 수뇌부와 끝까지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함께 할
결사옹위의 육탄성새
결사관철의 육탄방패
이 영웅들을 믿고
이 애국자들을 믿고
그 무슨 일인들 못하랴
백두령장의 심장에서 우뢰치는
위대한 선언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조선의 결심은 장군님 결심
그것은 지심을 뒤흔든 핵억제력의 장엄한 뢰성
이 땅을 박차고 우주를 날으는
인공지구위성의 그 메아리
하늘땅에 굽이치는
주체철, 주체비료의 폭포소리…

그것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를 건드리는 원쑤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백두산총대의 불벼락
통일조국의 하늘가에 터져오를 축포성

노래하라, 서해여
불가능을 모르고
주저를 모르고
그 무엇이든 마음먹은대로 다 하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리자들
선군조선의 불굴의 신념과 필승의 담력을

세계여 들으라
그 무엇으로도 가늠할수 없고
《요격》할수도 없는
핵탄보다 더 강한
천만군민이 하나로 뭉친 힘
일심단결의 정신력이 폭발하는 소리를

철썩 처절썩—쏴
감격의 파도가 밀려온다
일망무제한 만복의 대평야가
서해와 손잡고
간석지 새땅의 노래를 부른다
강성대국의 금파만경이 파도쳐 설레인다

—수령님 념원을 풀어드린
대계도간석지의 희한한 풍경을
하늘에서 촬영하여
수령님께 보여드립시다
대계도영웅들의 그 위훈을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하게 합시다

아, 사랑의 하늘길을 날으는 비행기
그 동음소리 장군님 음성으로 새겨들으며
용감한 바다사나이들이 가슴을 들먹이였다
심장과 심장이 그리움의 격정을 터쳤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그립습니다 장군님!

사람들이여
가렬했던 대자연개조의 격전장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그 신념이
불길처럼 나래쳐오른 이 땅에서
서둘러 기념비를 찾지 마시라

신념의 불사조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은
서해의 이 기슭
강성대국의 새 령토가 펼쳐진 이 땅에
태양의 그 글발을
승리의 기념비로 높이 세웠나니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백년, 천년…
이 땅우에 살며 복락할
우리의 후손들은 읽으리라
한자두자
백두령장의 숨결 뜨거운 이 글발에서
어떻게 조국의 령토가 넓어졌는지
어떻게 조국의 지도가 달라졌는지

천년을 만년을 노래하라 서해여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그 불멸의 애국위업을
미래를 위하여 피와 땀을 바친
선군시대 사람들의 위훈을

조선의 넓어진 령토는
대계도간석지제방의 긴 팔을 내밀어
파도와 악수를 한다
우리 이제는 저 대양 한복판에서 만나자고

위훈떨친 대계도건설자들이
새로운 전구
곽산앞바다로 떠나간다
바다의 정복자들이 대양으로 나간다
선군조선은 세계를 향해나간다

승리가 있으라
국토를 넓혀가는 애국의 대오여
바다를 막아
조국의 새 해안선을 펼치며
조국의 새 지도를 그려가는
그대들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장군님 안겨주신 백승의 기치를
일심단결의 대오앞에 펄펄 휘날리며
혼연일체의 대하는 노도쳐간다
만복이 꽃피는 미래의 기슭으로 파도쳐간다

수령님 후손들의 영원한 삶의 터전
사회주의조국의 영원한 재부—땅이여
아름다와지고 또 아름다와지라
아, 사랑의 지평선에 노을이 불탄다
만복의 지평선에 태양이 빛난다!

경제강국을 향하여 비약하는 선군조국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제국주의의 군사적강권과 침략책동을 짓부시며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지금 남녘겨레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현실을 통하여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위력을 체험한 그들이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선군정치에 대한 지지옹호의 기운도 그만큼 높다.

얼마전 부산의 한 대학교수는 만난을 이겨내고 승리에로 돌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에 찬탄을 금치 못하면서 제자들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다른 나라들같으면 벌써 주저앉았을 엄혹한 난국에서도 용기백배 강성대국건설에로 돌진하는 이북민중의 모습은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명력을 더욱 절감하게 한다.

서방세계의 끈질긴 경제봉쇄나 가혹한 자연재해속에서도 자기의 생명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는 민중중심의 사회주의는 공화국을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존엄떨치게 하고 전체 민중을 경제강국건설에 궐기시키고있다.

나는 **김정일**령도자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가 지금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북을 세상에 소리치며 강성대국에로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양양한 미래에로 향도하는 승리의 기치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길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자랑찬 승리에 대한 다함없는 격찬이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의 분출이다.

오늘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군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강도적침략책동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지키고 자주적발전의 길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방도는 오직 외세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수 있는 강위력한 군사적힘을 가지는데 있다.

력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피눈물의 언덕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더욱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는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무적의 군력으로 제압하고 우리 조국에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안아온 필승의 기치였다.

서울대학교의 한 력사학자는 《미국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맞받아나가 련전련승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한 이북의 경이적인 현실은 선군정치가 얼마나 리상적이고 자주적인 정치인가를 잘 말해준다.》라고 선군정치의 진리성에 대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였다.

남조선의 한 자유기고가는 《오늘날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강권과 횡포를 휘두르고있으면서도 유독 곤경에 빠지는 지역이 있으니 그곳은 조선반도이다.

이북은 지금 미국이 감행하고있는 강도적인 침략책동과 략탈야욕을 최전선에서 강력하게 억제하는것으로 하여 반제투쟁의 험난한 길을 가고있는 진보적인류에게 승리의 려명을 비쳐주는 희망의 땅으로 거연히 솟아오르고있다.

오늘의 자주시대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혁명전략에 의해서 선군시대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되였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선군시대를 열렬히 격찬하였다.

선군이야말로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강대국들의 전횡을 맞받아 우리 민족에게 한없는 긍지와 드높은 존엄을 안겨주고 진정한 평화를 담보해주는 정의의 힘이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적흐름과 인류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정치인것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가 펼치는 내 조국의 위대한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최상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있으며 그이께서 걸으시는 선군장정의 자욱자욱에서 이룩되는 경이적인 사변들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서사시로 아로새겨지고있다. 이로부터 남조선인민들이 받아안는 민족적자부심을 무슨 말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남조선의 한 정치학박사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령도자님의 탁월한 령군술에 의해 이북군대는 조국보위도 경제건설도 다 맡자는 구호를 들고 소비하는 군대가 아니라 건설하는 군대, 창조하는 군대로 변모했다. 이북에서는 군대가 만대로 전해갈 기념비적사업들을 수없이 맡아하고있다. 한손에 총을, 다른 손에 삽을 잡은 인민군대의 손에서 새 도시가 세워지고 갑문이 생겨나며 고속도로가 뻗어가고 발전소가 일떠선다.

김정일령도자님의 선군정치에 의해 이북에서는 동서에도 없고 고금에도 없는 강성대국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 그의 애국애족적성격을 페부로 느끼는 남녘겨레들이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적극 신뢰하고있는것이며 선군옹호의 길에 너도나도 나서고있는것이다.

인천의 한 대학생은 어느 한 토론회장의 연단에서 《**김정일**령도자님께서 펴시는 선군정치로 하여 민족의 운명이 수호되였듯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이북의 혼연일체의 위력은 자주통일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확신하게 하여준다.》라고 격조높이 웨치였다.

남조선의 미래연구학회의 한 회원은 자기의 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이렇게 찬양하였다.

《선군정치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고 고전에도 없다. 그리고 그것을 실시해본 정치가도, 경험해본 나라도 없다. 선군정치는 **김정일**령수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내놓으신 가장 독특하고 새로운 위대한 정치방식이다. 그것은 조직화되고 정예화된 군대를 본보기로, 기둥으로 삼고 나라도 지키고 민족의 번영도 이룩하는 애국, 애족, 애민의 참정치이다.

김정일령수님의 현명한 선군령도에 의해 오늘 이북은 인구는 많지 않아도 세계를 움직이는 대국으로, 령토는 크지 않아도 초대국도 범접 못하는 강국으로 우뚝 솟아 위용을 떨치고있다. 인류가 갈망하는 정치방식, 21세기의 앞길을 개척할 리상적인 정치방식은 **김정일**령수님의 선군정치밖에 없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우리 민족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으며 선군의 기치따라 나아갈 때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것이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굳은 확신이다.

김 현 철

천출명장을 모시여 창창한 민족의 앞날

오늘 통일의 아침을 마중해가고있는 우리 민족의 전진도상에 천만산악이 가로놓이고 그 어떤 엄혹한 난관과 시련이 막아나서도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그 앞날은 창창하다.

남조선인민들은 선군정치에 의하여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전쟁소동과 압살책동이 걸음마다 분쇄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평화가 끄떡없이 수호되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에서 선군령장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고있다.

언제인가 서울시내에서 진행된 《오늘의 세계와 민족의 앞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고 겨레의 삶과 운명을 담보해주는 정의의 보검이다.

선군정치가 아니였다면 이 땅에서는 이미 참혹한 전쟁이 터졌을것이고 온 나라가 모든것이 재더미속에 묻힌 황량한 페허로 되였을것이다.》

《오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정의의 총대로 지구의 축을 돌리는 이북의 선군정치의 위력앞에서는 수세에 몰려 갈팡질팡하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천출명장이신 **김정일**령도자님의 선군정치가 있기에 우리 나라는 멀지 않아 통일이 되고 세계제일의 강국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이것은 남녘땅 그 어디서나 울려나오고있는 신념의 목소리이며 선군으로 백승떨치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시대의 격찬이고 장군님께 모든 운명을 맡기고 따르려는 민심의 정화이다.

서울의 한 교수는 동료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오늘의 복잡한 정세를 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요즘 정세가 복잡하고 험악할수록 **김정일**장군님을 생각하게 된다. 위인의 지도력과 담력은 시련의 시기에 진가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미국의 횡포한 압살책동을 물리치시고 이북의 안녕뿐아닌 온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였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 겨레에게 **김정일**장군님만 계시면 배달겨레의 운명도 굳건하고 조국의 미래도 찬란하다는 신념을 굳게 하여준다.》

그의 이 말을 들으며 동료들도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남조선의 인터네트를 통해서도 《민족의 밝은 장래》, 《자주와 존엄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둥》, 《군력이자 곧 자주》 등 다양한 주제의 론의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통일련대소속의 한 네티즌은 인터네트에 《자주의 총대로 외세의 반통일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는 이북의 선군정치가 있어 민족자주통일은 확정적이며 자주로 번영할 통일조국의 미래도 밝은것》이라고 자기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 따르는 길에 조국통일이 있고 민족의 밝은 앞날이 있다.》

남녘겨레가 심장으로 절감하듯이 우리 민족의 크나큰 행운은 위대한 선군령장, 백두산천출위인을 통일위업의 진두에 높이 모신데 있으며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기에 민족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부산의 한 대학교수는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창창한 민족의 앞날이 있다고 하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운명의 수호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령수로 높이 모시여 우리 민족은 멀지 않아 통일위업을 성취하고 세계에 빛나는 존엄높은 민족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우리모두 그날을 위해 더욱 분발하자.》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모시고 따르며 과감한 투쟁으로 통일의 밝은 래일을 앞당겨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이 신념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다.

장 윤 남

재일조선인력사, 인권월간 동일본집회 진행

2010 재일조선인력사, 인권월간 동일본집회가 8월 29일 일본 요꼬하마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재일동포들과 일본의 일조우호련대성단체, 로동조합, 시민, 평화운동단체 인사들과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일본인측 중앙본부 공동대표 데라오 데르미가 연설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다고 말하였다.

재일조선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자면 일본정부가 일조평양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하루빨리 과거죄악을 청산하고 관계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어 가나가와현 조선학교 어머니회 대표가 발언하였다.

그는 일본당국이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만을 제외하는것은 민족차별을 조장하는 용서 못할 인권침해이며 배움의 권리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집회에서는 릿교대학 부교수 이시자까 고이찌가 보고를 하였다. 그는 《한일합병조약》날조 100년과 관련하여 발표된 일본수상의 담화에는 과거 식민지범죄에 대한 사죄, 배상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일조국교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일본정부가 과거죄행에 대한 사죄, 배상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요구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의 활동이 일본각지에서 련일 전개되고있다.

아이찌조선학원 대표들과 일본시민들은 8월 24일 문부과학성에 1만 9 300여명의 서명문을 전달하면서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제도의 즉시적인 적용을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10일 재일동포시인들과 일본시인들은 문부과학성을 찾아가 일본정부가 조선학교지원문제해결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기간 저지른 죄행가운데서 가장 악질적인 만행이 민족고유의 말을 빼앗고 일본어를 강요한것이라고 까밝혔다.

과거 강제로 일본에 끌려온 사람들의 후손들이 자기 나라말로 공부를 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면서 조선학교학생들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부당하다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말라리아환자 증가

1일 남조선의 《MBC》방송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에서 말라리아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2009년에 말라리아환자수는 전해에 비해 30%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올해에 들어와 8월까지 서울에서만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나 증가하였다.

서울과 경기도지역, 인천과 남조선강원도를 비롯한 22곳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였다.

본사기자

인민을 우롱하는 기만광고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임기마지막날까지 처음 먹은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그러나 거기서는 독기가 풍기고있다. 요컨대 그것은 반역적인 악정을 계속 강행하며 사대와 매국, 파쑈와 반통일의 길로 변함없이 질주하겠다는 소리이다. 집권후반기에도 전반기처럼 민심을 거역하며 오만과 독선을 부리려는 그의 속심이 이 말에 비껴있다.

민심에 역행하면 천벌을 면치 못한다.

지금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들속에서는 피뢰패당의 반역통치를 반대하는 투쟁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최근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남조선 전지역의 학생단체대표 1000여명이 서울 성동구에 모여 반《정부》집회를 열고 현《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설 의지를 피력한것은 그 한 실례이다.

남조선정계에서도 현 당국자의 집권전반기의 죄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며칠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리명박집권 2년반동안 서민경제, 북남관계, 재정 등의 총체적파탄속에 《용케도 주민들이 살아남았다.》는 말로써 피뢰당국의 악정을 신랄히 고발단죄하였다.

그는 특히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남조선주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있다고 하면서 당국이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다고 까밝히였다.

요즘 《한나라당》족속들이 저들의 집권 2년반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그 무슨 《초석》을 다진 기간이라느니 뭐니 하며 있지도 않는 치적광고에 열을 올리고있지만 그것은 통할수 없는 요설이다.

보수패당의 집권으로 남조선이 미국에 더욱 철저히 예속되고 남조선사회가 이전 군부파쑈독재때나 다름없는 파쑈란무장으로 화하였으며 북남관계가 완전한 파국에 처하고 극도의 전쟁위험이 조성된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사실상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리명박의 집권 2년반은 고통과 불행, 치욕과 희생으로 엮어진 악몽의 련속이였다.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통일된 새세상을 안아오자면 민심을 기만우롱하고 그에 도전하면서 독재통치를 일삼는 반역무리들부터 타도해야 한다는것, 바로 이것이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다시금 뼈에 새기는 교훈이다.

남조선집권자는 어제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여 《서민정책》을 펴겠노라고 너스레를 떨고 오늘은 또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민심에 역행하여 오만하게 죄악의 반역정치에 계속 매달릴 흉계를 드러내고있다. 인민대중을 등진자의 결과 속은 이렇게 판판 다르다.

현실은 리명박역도의 집권전반기의 악정이 후반기에 그대로 되풀이될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속담에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하였다. 집권초기부터 민심에 등을 돌리고 독재정치로 잔명을 부지해온 보수패당의 반역적기질이 집권후반기라고 달라지겠는가.

사무치는 분노로 이를 갈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반역《정권》타도의 구호를 들고있다.

본사기자

함선침몰사건의 조작증거 공개

남조선의 미군철수운동본부 《천안》함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8월 23일 론평을 발표하여 함선침몰사건조사결과의 부당성을 론증하는 새로운 자료를 폭로하였다.

론평은 이날 단체가 《국방부》 장관 등을 함선침몰사건조작의 주범으로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 리유는 단체가 자체로 사건을 조사하던중 명백히 조작이라는 물질적증거를 찾았기때문이라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민간어선이 건져올렸다고 하는 어뢰잔해와 합동조사단이 공개한 어뢰잔해가 서로 다르다는것이 이번에 확인되였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어선이 어뢰잔해를 건져올렸을 때 어느 한 부분에 은박종이가 붙어있었다고 하면서 폭발했다고 하는 어뢰잔해에 어떻게 은박종이가 그대로 남아있을수 있는가고 론평은 까밝혔다. 론평은 이것은 함선침몰사건이 조작된것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함선침몰의 정확한 원인을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강도적행위를 규탄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8월 31일 피뢰국방부앞에서 104차 평화군축집회를 가지고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이전비용과 관련한 미국의 강도적행위를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최근 미국이 저들이 부담해야 할 미제2사단기지이전비용을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미군유지비로 충당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앞으로 진행될 년례안보협의회에서 채택될 문건에 명기하려 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이미전부터 인민들이 미국의 새로운 전쟁전략에 따른 미군기지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남조선이 부담하게 될것이라고 우려해오던것이 현실로 되여가고있다고 그들은 개탄하였다.

그들은 각계층이 미군기지이전비용부담과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독특한 형식의 고구려벽화무덤 발굴고증

최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사들이 4세기말~5세기초의것으로 인정되는 독특한 형식의 고구려벽화무덤을 발굴고증하였다.

무덤은 락랑구역 동산동일대에서 제일 높은 언덕에 자리잡고있다.

길이 12.8m, 너비 2~2.4m로 북남으로 길게 놓인 돌칸흙무덤에는 안길, 앞칸과 좌우의 두 곁칸, 사이길, 안칸 등이 있다. 앞칸은 길이 240cm, 너비 210cm, 높이 330cm이고 두 곁칸의 크기는 각각 길이 80cm, 너비 72cm, 높이 115cm이며 천정들은 궁륭삼각고임, 평행삼각고임형식으로 되여있다.

무덤에서는 세사람분의 뼈와 순금으로 만든 꽃잎형, 반구형장식품, 원형은장식품, 톱날형금동장식품들과 관못, 도기류, 사자모양의 청자기와 청동화폐류 등이 발굴되였다.

특히 천정과 벽에 그린 그림이 학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안길량벽에는 행렬도, 앞칸과 사이길, 안칸벽들에는 붉은 기둥과 문지기장수, 여러가지 무늬들이 부각되여있다.

행렬도의 윗부분에는 5명의 인물과 4필의 말이 그려져있고 가운데부분에는 철갑을 씌운 말의 몸통과 다리가 있으며 그우에는 사람의 머리가 약간 보인다.

아래부분에는 검은 머리수건을 쓰고 긴 창같은것을 들고가는 사람들이 형상되여있다.

안길서쪽벽에는 수레바퀴와 말을 탄 사람이 있는데 판모를 쓴 그의 눈과 코수염, 말갈기가 아주 생동하다.

무덤칸우에 석회와 숯, 진흙을 엇바꾸어 다지면서 봉분을 쌓은것은 다른 무덤들에서 볼수 없던 특이한것이다. 이 무덤은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벽화무덤들가운데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구조형식이 독특하다.

학자들은 이 무덤의 구조가 덕흥리, 약수리벽화무덤과 류사성이 많고 여러칸무덤으로부터 곁칸이 있는 두칸무덤 및 감있는 두칸무덤으로 넘어가는 과도형무덤형식으로 보고있다.

새로 발굴된 벽화무덤은 고구려의 국력과 문화발전수준 등을 깊이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다.

제7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진행된다

제7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대외문화교류쎈터에서 진행된다.

여러 나라의 많은 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이 참가하는 전람회에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에네르기, 전자공학, 유전자공학, 건축학, 환경 및 생태학, 기초과학, 의학분야의 최신과학기술도서들과 자료들이 전시된다.

전람회기간 최신과학기술성과를 소개하는 강의와 경험교환회도 있게 된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행되는 이번 전람회는 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강의한 정신력으로 세계패권을

제50차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조영철선수

지난 8월 6일 도이췰란드 뮨헨에서 진행된 국제사격스포츠련맹 제50차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성인급남자개인 10m이동목표 (변화) 사격경기 시상식에서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영예의 우승의 시상대에서 애국가의 장중한 주악속에 높이 오른 람홍색공화국기를 향해 엄숙하게 거수경례를 하는 우리 나라의 조영철선수,

뜻깊은 당대표자회를 앞둔 시각에 멀고먼 이역땅에서 조국의 영예를 누리에 빛내이고 위대한 선군령장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것보다 더 큰 군인체육인의 긍지와 행복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수들의 사상정신상태와 투지, 민첩성과 기술은 체육경기의 성과를 결정합니다.》

우리 나라의 조영철선수는 이번에 두번째로 국제경기에 참가한 신진선수이다.

그는 처음으로 참가하였던 국제경기인 4년전의 제49차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청년급 50m이동목표 (변화) 사격경기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승한 전적을 가지고있었다.

10m이동목표 (변화) 사격개인경기는 매 선수들이 이동속도가 변하는 목표에 대하여 20발씩 두차례에 걸쳐 사격한 다음 총점수를 비교하여 최종승부를 겨루는 경기이다.

국제경기경험이 부족한 조영철선수는 첫날 20발사격에서 제일 앞선 선수와 3점이나 차이가 났다.

승리는 두번째 날 경기에 달려있었다. 세계패권자가 결정될 두번째 날 경기에서 사격선수라면 누구나가 불안한 심리적파동속에 빠져들수 있는 그런 불리한 경기정황이 조영철선수에게도 조성되였다. 17번째로 날린 총탄이 아쉽게도 8점안에 들어갔던것이다.

참으로 긴장한 순간이였다.

남은 총탄은 세발, 이제 또 실수하면 금메달은 생각할수 없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리승일감독은 말하였다.

—침착하게 장탄하는 조영철선수를 바라보며 굳게 믿었다. 그가 무기에 단순히 총탄만을 재우고있지 않다는것을.

어찌 그렇지 않았겠는가.

첫날경기가 끝난 후 다른 나라와 지역의 선수들은 모두 숙소로 돌아갔지만 조영철선수는 경기장소에 있는 훈련장에 남아 사격훈련을 하였다.

말없이 훈련에 열중하는 그를 보는 순간 리승일감독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조국에서의 훈련의 나날에도 저렇게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스스로 높이면서 불같은 열정을 바쳐온 조영철선수가 아니였던가. 그의 가슴속에서 무엇이 끓고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그날 저녁 우리 나라 사격협회서기장 김웅기동무며 감독들이 결정적인 다음날경기보장을 위한 토의를 진지하게 벌리는 가운데 숙소에서는 한초한초가 뜨겁게 흘러갔다. …

옳았다.

사격기술보다 먼저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무비의 정신력,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혁명군대의 체육인은 18번째 사격을 앞둔 그 시각에 자기 무기에 필승의 의지를 억척같이 재웠다. 사격에서의 부족점을 간파한 조영철선수는 최후승리를 내다보며 용기백배하여 총탄을 날렸다. 필승의 의지에 떠받들린 병사의 총구는 10점과녁에로만 향하였다.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의 병사답게 10점 명중,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란 군인체육인의 담력과 배짱으로 마지막총탄도 가슴후련하게 10점 명중하였다. 하여 조영철선수는 우승을 노리던 중국, 남조선 등의 선수들을 누르고 성인급남자개인 10m이동목표 (변화) 사격경기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여 세계패권자의 영예를 떨쳤다.

이밖에도 우리 녀자선수들도 두개의 은메달과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세기에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쟁정신으로 심장을 끓이며 우리 나라의 리호준선수가 세계새 기록을 세우고 제20차 올림픽경기대회 사격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던 도이췰란드의 뮨헨땅에서 새 세대 군인체육인이 혁명적대고조의 기상이 나래치는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개를 또다시 온 누리에 떨친 이 혁혁한 성과를 통하여 무엇을 자부하게 되는가.

그것은 절세의 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아래 세대와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이어지는 백두의 혁명정신이야말로 천만군민의 위대한 정신력의 근본원천, 선군조국의 모든 승리의 근본뿌리이라는것이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영원한 백두의 혁명정신이 있는 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새로운 승리의 노래를 더 높이, 더욱 자랑차게 터쳐갈것이다.

본사기자 오 철 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도착

박구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황도식 재일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축하단을 맞이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권인학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와 꾸바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0돐기념 우표발행식 및 사진전시회개막식 꾸바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꾸바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0돐에 즈음하여 기념우표발행식 및 사진전시회개막식이 8월 30일 꾸바우표박물관에서 진행되였다.

기념우표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손을 잡고 높이 드시여 두 나라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의 정을 표시하시는 사진이 모셔져있으며 《꾸바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0돐》, 《꾸바우편 2010》이라는 글이 씌여져있다.

사진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상봉하시는 사진들,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에는 아나 떼레씨따 곤쌀레스 꾸바외무성 부상, 씰비아 무나리스 정보 및 체신성 부상, 알리씨아 꼬레데라 제인민간의 친선협회 부위원장, 후안 호쎄 레온 베가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제1부위원장, 기타 관계부문 일군들, 군중이 참가하였다.

권승철 꾸바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행사는 꾸바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꾸바외무성 부상은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상봉한것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 관계가 계속 공고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기념우표와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중국에 가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출발

중국에서 진행되는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 조선관의 날행사에 참가할 황학원도시경영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리강희 도시경영성 부상과 왕치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경제무역참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중국에 갔던 우리 나라 정부경제무역대표단 귀국

중국 장춘에서 진행된 제6차 중국 길림, 동북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에 참가하였던 구본태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경제무역대표단이 4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경제무역참사가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혁명령도는 모든 승리의 담보

기념강연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이딸리아, 스웨리예, 로므니아, 타이에서 강연회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강연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강연회들에는 이딸리아통일공산당, 공산주의자당, 스웨리예의 공산당, 로므니아근로자협회, 타이 엠. 아이. 케이. 국제법률 및 실업유한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오스왈도 뻬쉐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는 모든 승리의 담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시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류자주위업을 전진시키는데서 선군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히시였으며 선군혁명령도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그이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반동들의 온갖 발악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면서 경제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위업과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계시는 **김정일**동지께 영광을 드리고있다.

스웨리예의 공산당 국제비서 에리크 안데르쏜은 《자주, 평화와 선군》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걸음마다 분쇄되고 평화가 보장되여온것은 바로 선군의 덕이다. 선군의 기치밑에 조선에서는 그 어떤 침략도 단호히 쳐부실수 있는 강력한 군력을 끊임없이 다져왔다. 선군에 의해 다져진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세계평화에 대한 조선의 커다란 기여로, 공적으로 된다.

로므니아근로자협회 위원장 다니엘 데디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과 거듭되는 자연재해의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시였으며 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의 선군령도가 있어 조선통일의 리정표인 6. 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이 채택되고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비상히 강화될수 있었다.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밑에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불레찐 발행

불레찐 《**김정일**, 선군령도 50돐》을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와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가 8월 24일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글에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령도는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승리를 떨칠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불레찐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하심으로써 당사업에 앞서 군사분야에 대한 지도를 먼저 시작하시였으며 선군령도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시는데 대하여, 그이의 선군정치밑에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기술적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불레찐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로 하여 조선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고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비상히 높아진데 대해 전하고 조선인민군을 필승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정일**령도자께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고 강조하였다.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인디아와 수리아인사들이 8월 2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인디아공산당 (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위원 하리싱 캉은 담화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력사의 시련을 이겨내며 영광스러운 행로를 걸어왔다.

미제는 조선인민에게 당한 참패에서 아직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들은 조선인민이 선택하고 강화발전시켜온 사회주의제도를 질식시키려고 경제봉쇄와 군사적공갈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하지만 거기에 놀랄 조선인민이 아니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 무적의 힘을 키워왔다.

나는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한다.

아울러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싸베르 발룰은 담화에서 **김정일**각하께서 인민군대를 강화하심으로써 조선인민군은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전취물의 보위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수호자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고 격찬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는 특히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후 오늘까지 영웅적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전횡에 과감히 맞서싸울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지난 세기 90년대는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와 함께 《유일초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이 조선과 같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나라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테로와 전횡을 일삼고있었으며 더우기 조선에 있어서는 몇년째 련이은 자연재해로 하여 매우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였다.

그러나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정치적압력과 경제봉쇄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드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전취물을 빛나게 수호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따라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모신 조선인민에게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온 누리에 빛을 뿌리는 사회주의조선

선군으로 존엄높은 우리 조국땅우에 륭성번영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천출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사상과 인덕정치가 훌륭히 구현되여 인민들모두가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격찬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요르단의 한 주체사상신봉자는 약동하는 평양의 모습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평양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며 투쟁의 상징으로 빛나고있다. 평양과 지방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날이 갈수록 더욱 공고해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는 사상적공세를 강화하고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퍼뜨리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단마르크공산당 부위원장은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은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가정권기관의 일군들뿐아니라 로동자, 농민, 과학자들 그리고 해외공민들도 최고주권기관에서 나라의 정사를 론의하고있다. 조선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말들이 많다. 무상치료의 나라, 무료교육의 나라, 세금없는 나라,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 인민병원, 인민예술가, 인민체육인…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아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의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많이 붙인 나라는 조선밖에 없을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한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따르고있으며 자기의 자주적요구가 실현된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고있다.》

세계는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총진군을 다그치며 세인을 놀래우는 대비약, 대혁신을 창조하는 우리 인민의 힘찬 투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보고있다.

진보적인류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로 우러르며 강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빛나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20세기 전반기 일본의 식민지통치하에 있던 조선이 짧은 기간에 이룩한 진보와 번영은 경이적인것이다. 최근년간에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공화국정권의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는것으로 된다. 옳바른 사상에 의해 령도되고 위대한 정치가 구현되는 나라만이 강국의 위력을 떨칠수 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최근년간 조선을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울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신다.

사회주의의 운명을 위협하는 제국주의렬강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련이어 승리하여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경제를 부흥시키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그이의 사상과 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일**각하의 필승의 기상과 의지로 약동하는 전도양양한 나라이다.》

참으로 희세의 선군령장을 모시여 인민의 념원과 리상이 활짝 꽃피는 조선의 사회주의가 있어 세계 진보적인류는 정확한 라침판을 가지고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것이다.

만민의 마음속에 희망의 등대로, 승리의 상징으로 자리잡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은 끝없이 륭성번영할것이다.

라명성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청년동맹 제1차 전국리사회 회의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

8월 26일에 진행된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청년동맹 제1차 전국리사회 회의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청년동맹 부위원장 안딜레 룬기자는 연설에서 미국의 호전적인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에서는 그 누가 대통령이 되여도 호전적인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오바마행정부의 출현후 미국의 정책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오늘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고있다.

미국은 핵으로 조선을 위협하면서 오히려 조선이 보유하고있는 핵무기에 대해 생트집을 걸고있다.

우리는 조선반도핵문제가 평화와 안전의 견지에서 공정하게 해결될것을 주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은 공명정대하다.

회의는 최근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여 그것을 유엔에까지 끌고갔으며 도발적인 침략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면서 영구분렬을 꾀하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화국책동을 준렬히 단죄하고 조선의 자주정치와 자주적평화통일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핵전쟁위협책동 규탄, 국제적운동 호소

꾸바혁명의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동지가 8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핵전쟁위협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이 이란 등 나라들에 계속 군사적위협을 가하고있는데 대해 폭로, 단죄하고 미행정부가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미국은 궁지에 빠져있다고 하면서 그는 《제국은 전쟁을 하든 하지 않든 붕괴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8월 30일 한 회견에서 핵전쟁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운동을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공격기도를 더욱 로골화하고있는데 대해 단죄하고 이란정부와 인민은 그러한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미국이 이란을 반대하는 위험한 전쟁을 끝끝내 도발한다면 인류는 무서운 핵참화를 입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세계 모든 나라와 인민들이 핵전쟁을 막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큰물피해

파키스탄에서 최근 큰물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8월 25일 남부지역에서 또다시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가 발생하여 100만여명의 주민들이 긴급소개되였다. 그리하여 8월 27일현재 큰물로 약 1 600명의 사망자가 나고 피해자수는 2 000만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니제르의 동남부와 북부 등 여러 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가 내려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19만 8 740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으며 약 8만마리의 집짐승이 죽었다.

화산분출

인도네시아의 북부쑤마뜨라주에 있는 씨나붕화산이 8월 30일 또다시 분출하였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2 000m 높이까지 연기가 뿜어올랐다. 화산분출로 려객기운행에 혼란이 조성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군대의 전투력을 높일데 대해 강조

수리아국방상 알리 무함마드 하비브 마흐무드가 8월 29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군대의 전투력을 높일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군인들이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적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이스라엘에 의해 강점된 아랍령토를 해방하고 주권을 되찾을 때에만 이룩될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서방의 압살책동 단죄

이란외무상 마누체흐르 머타키가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압살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서방이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할수도 있다.》는 억지주장을 늘어놓으면서 유엔을 통한 대이란제재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그것은 이란에 대한 서방의 부당한 압력정책을 여실히 드러내보이고있다고 까밝히고 그는 자기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할 의향을 가지고있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경영형편 악화

일본의 한 경제단체는 8월 27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7월에 건설부문에 대한 주문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 7% 또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이 부문 기업체들이 불경기에 시달렸다 한다.

한편 카나다의 주요금융업체인 로얄은행에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리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되였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삼림공원건설, 대교건설 시작

중국 광동성에서 삼림공원을 많이 건설하고있다.

현재 성적으로 418개의 삼림공원이 꾸려져있는데 그 총면적은 98만 900ha에 달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앞선 자리를 차지하는것으로 된다.

한편 호북성에서 최근 제8무한장강대교건설공사가 시작되였다.

대교의 길이는 3 420m에 달한다. 공사는 5년동안 진행되게 된다.

국내총생산 장성

인디아에서 올해 2. 4분기에 국내총생산이 8. 8% 장성하였다. 8월 31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온실가스방출량 감소

메히꼬에서 환경보호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8월 30일에 발표된 정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동안 이 나라에서 온실가스방출량이 1 950만t 감소되였다. 나라에서는 2012년말까지 년간 온실가스방출량을 5 000만t 줄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비행장 건설

말레이시아에서 새 국제비행장을 건설하고있다.

쎌랑고르주의 남부지역에 일떠서는 이 비행장은 2012년 4월까지 완공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정부에서 비행장건설에 많은 자금을 돌리고있다.

협조

중국과 타이가 8월 29일 군사분야에서 호상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8월 28일 로씨야와 아제르바이쟌은 두 나라사이의 국경선확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약압수

감비아의 반마약기관이 8월 25일 서부지역에서 군대와의 협동하에 마약수색작전을 벌렸다. 작전과정에 6명의 마약관련 범죄자가 체포되고 1t이상의 카나비스가 압수되였다.

한편 우즈베끼스딴의 따슈껜뜨교외에서 8월 26일 반마약투쟁의 한 고리로 마약을 불태워버리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의식에서는 최근에 압수된 710. 7kg의 각종 마약이 소각되였다.

1994년이래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압수, 소각된 마약은 총 46t에 달하였다.

부정부패반대투쟁

알제리정부가 최근 부정부패행위와의 투쟁을 맡아보는 중앙기관을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새로 창설되는 기관은 국영기업소들에서의 부정부패행위를 조사장악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며 사법기관들이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본사기자

배격당하는 이스라엘

아랍국가련맹 총서기사무소 책임자가 8월 31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유태인정착촌건설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는 이스라엘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유태인정착촌건설을 중지하지 않으려는 이스라엘당국의 부당한 태도는 곧 진행될 팔레스티나—이스라엘평화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을 파탄시킬수 있는 명백한 위험요소로 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당국에 지역의 평화를 이룩하려는 의향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그는 폭로, 단죄하였다.

한편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석협상자 사에브 에레카트가 최근 이스라엘극우익정객의 망발을 단죄하였다. 얼마전 이스라엘의 한 련립정당의 정신적지도자라는자가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과 팔레스티나인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줴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민족당국 수반에 대한 암살과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대량학살을 선동하는 망발로 락인하였다. 그는 이것이 과연 팔레스티나와의 평화를 바란다는 이스라엘당국의 자세인가고 반문하였다.

본사기자

인도네시아 쟈까르따시의 야경

실패를 면할수 없는 《반테로전》

지난 8월 17일 아프가니스탄대통령 카르자이가 2011년 1월 1일까지 자국내의 민간경비회사들을 해산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을 불안하게 하고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들의 여러 기관들과 기업체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발붙이기가 힘들어질수 있기때문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외국경비회사들을 포함하여 모두 52개의 민간경비회사들이 운영되고있다. 이러한 경비회사들이 고용한 경비인원수는 2만 6 000~4만명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경비성원들의 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활동을 벌리던 그루빠출신들이라고 한다.

민간경비회사들은 아프가니스탄정세가 매우 불안정한것을 리용하여 이 나라 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들과 외국기업체들의 건물, 시설 등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벌이를 하여왔다.

하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러한 민간경비회사들의 활동은 적지 않은 부정적후과를 낳고있다.

지금 여러 민간경비회사들은 경쟁적으로 무장인원들을 끌어당기고있다.

얼마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청장년들은 아프가니스탄의 군대나 경찰에 입대하여 복무하려 하는것이 아니라 몇푼의 돈에 현혹되여 민간경비회사들에 들어가고있다. 이로 하여 자체의 군사무력을 늘이기 위한 아프가니스탄정부의 노력에 제동이 걸리고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매 민간경비회사들이 경비성원들을 500명이상 채용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정해놓았다. 그러나 민간경비회사들은 이러한 법을 공공연히 어기면서 저마끔 경비성원들을 늘이고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남부의 칸다하르지역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농후하게 나타나고있다고 한다. 칸다하르지역에 있는 군벌들은 자체의 사설무장조직들을 내오는 방법으로 병력을 늘이고있다.

민간경비회사성원들에 의해 폭력행위들과 민간인사살사건 등 각종 범죄들이 저질러지고있다.

정부의 규정에 따라 민간경비회사성원들은 도시에서는 권총과 같은 소형무기를 가지고다닐수 있으며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로케트포 등도 사용할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경호의 명목밑에 무기를 휘두르면서 주민들속에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아프가니스탄대통령 카르자이는 이들이 《낮에는 도적이며 밤에는 테로분자들》이라고 로골적으로 비난해나섰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리반의 활동이 강화되자 민간경비회사들은 탈리반과 련계를 맺고 탈리반에 돈까지 넘겨주면서 자기가 담당한 대상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있다.

민간경비회사들의 존재는 이렇게 심각하다. 이로부터 아프가니스탄대통령은 민간경비회사들을 해산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던것이다.

이에 바빠맞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대통령이 이 법령발포를 철회하도록 설득하고있다.

미국무성의 한 차관보는 카르자이의 법령발포가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진행되고있는 미국의 활동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외교관들의 안전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 조치에 대하여 다시금 고려해볼것을 요구해나섰다.

민간경비회사들의 해산과 관련하여 미국이 우려하는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을 틀어쥐고 제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미국의 계책이 파탄될수 있기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에는 현재 외교관, 기업가의 탈을 쓴 미국인들이 수많이 들어와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깊숙이 손을 뻗치고 이 나라의 주권을 함부로 유린하고있으며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해나서고있다.

그런데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정책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이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것이 문제이다.

민간경비회사의 해산은 현지 집행자들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리는것으로 된다. 아프가니스탄강점 미군이 탈리반의 주요공격목표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미군에 의존할수도 없다. 이로 하여 미국은 안절부절못하고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 주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부정의적인 《반테로전》에서 절대로 승리할수 없다.

본사기자 리경수

《아쉐빌》호는 왜 사세보항에 기여들었는가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미해군의 핵잠수함 《아쉐빌》호가 최근 일본 나가사끼현의 사세보항에 기항하였다. 미핵잠수함이 이곳에 기여들기는 올해에 들어와 두번째이다.

얼마전 미제7함대소속 초대형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가 일본 사세보항을 거쳐 부산항에 기여들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핵항공모함전단에 소속된 《이지스》구축함들인 《맥캔벨》호, 《죤 에스 맥케인》호도 부산항에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토마호크》미싸일 154기를 탑재한 미제7함대소속 핵잠수함 《미시간》호가 같은 경로를 통하여 부산항에 기항하였다.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전례없이 긴장되고있을 때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것은 매우 주목된다.

부산항은 미제가 서태평양상의 제2항공모함기지로 리용하고있는 사세보항과 가장 가까운 항구로서 남조선해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전략적요충지이다.

사세보는 조선해협의 입구에 자리잡고있는 미해군작전기지이다. 미제가 이런 곳에 핵잠수함 《아쉐빌》호를 전개한것은 그들이 새로운 조선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우리 공화국을 하늘과 바다, 땅으로부터 기습공격하려는것은 미제의 변함없는 침략적기도이다. 이를 위하여 미제는 남조선강점 미군무력과 함께 일본, 하와이 등 태평양지역에 배치되여있는 방대한 무력을 조선반도에 투입하여 기동타격전을 벌릴것을 획책하고있다.

미제가 사세보에 핵잠수함을 배비한것은 이에 따른것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사세보항을 작전기지, 보급기지, 수리기지로 리용한 미제는 그후 이 기지를 더욱더 확장하였다. 1985년 미제는 사세보시의 사끼베지구를 공격작전을 위한 상륙함기지 등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일본정부에 통고하였다. 일본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즉시 응하였다. 이에 따라 사세보는 미해군의 주요작전기지로 전변되게 되였다.

사세보에는 거대한 연료저장시설이 있다. 이것은 미국방성이 가지고있는 연료저장시설들중 세번째로 큰것이다. 사세보에는 또한 미해군의 최대규모의 해외화약고가 있다. 마에하다지역에만도 지상탄약고와 지하탄약고 30여개가 있으며 하리오지역에는 지상탄약고만도 45개나 있다.

사세보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전방기지이다. 해마다 벌어지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합동군사연습때마다 수많은 침략함선들이 사세보에 집결되였다가 조선해역에 투입되고있다.

지난해 미제3함대소속 핵동력항공모함 《스테니스》호도 사세보항을 거쳐 부산항에 기여들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참가했었다. 올해에도 많은 미제함선들이 사세보항에 기항하였다가 조선동해에로 기여들고있다.

미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미군무력을 필요한 경우 사세보로 이동시킬것을 계획하고있다.

이번에 미제가 핵잠수함 《아쉐빌》호를 사세보에 전개한것은 《유사시》 즉각적으로 조선반도로 출동시킴으로써 그만큼 전투진입시간을 단축하고 기동성을 보장할것을 노린것이다.

최근 해상련합훈련에 이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년말까지 10여차례의 합동군사연습을 지속적으로 벌리려 하고있다.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오는 10월 부산항과 그 주변해역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따른 해상차단 및 검색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해군의 핵잠수함 《아쉐빌》호가 사세보항에 기항한것은 이러한 군사연습들에 참가하여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군사작전을 련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제의 전방전개전략은 곧 공격전략이다. 미제는 조선반도에서 기어코 새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이 지역인민들에게 커다란 재난을 들씌우게 될것이다.

미제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무모한 무력전개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본사기자 김종손

ㄱ-01161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